

#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김오남\*

Kim, Oh Na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general trends in family resources, stressors, stress perception, coping sty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family stress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single mother families. The subjects were the 284 children and their mothers living in Kwangju.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1) Family resources and stress perceptions were lower than the median. Single mother children's stressors, problem-solving focused coping,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were higher than the median. (2) Children's life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stress perceptions, problem-solving focused coping, and family strength. Children's depression was influenced by stress perceptions, emotion-focused coping, family strength, and problem-solving focused coping.

## I. 서론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편모가족은 현대가족 유형 중 증가율이 두드러진 형태의 하나로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장기간의 별거, 유기 등이 편모가족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와 1990년 사이 이혼 가구 수는 3만 5천에서 17만 4천으로 5배정도 증가하였고, 조이혼율(粗離婚率)도 1970년대 초 0.4%, 1980년대 초 0.8%, 그리고 1995년에는 1.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별가구 수는 45만 5천에서 119만 6천으로 2.6배정도 증가

였고, 기혼여성의 17.3%와 기혼남성의 2.9%가 사별가구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1996).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편모가구 수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하리라 추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편모가족의 자녀들은 부부재(父不在) 이후에 오는 감정처리나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서적인 문제, 증가된 책임량을 완수해야 하는 역할문제, 친구와의 관계나 학교생활에의 적응문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Hetherington &

\* 성화대학 아동복지과 전임강사

Anderson, 1989).

편모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불가피하게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조희선, 1991; Burden, 1986; Richards & Schmiege, 1993; Webster-Stratton, 1989)에서 일반가족보다 편모가족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편모자녀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족자원이나 스트레스인지, 대처행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Lavee, McCubbin & Patterson, 1985). 가족자원은 가족체계의 목표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동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서 가족 내 긴장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스트레스인지는 개인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자원과 대처하는 능력이 비슷하다라도 스트레스사건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적응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Homes & Rahe, 1967). 또한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체계 자원들을 강화,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Deacon & Firebaugh, 1988).

편모가족은 심리적 자원, 가족관계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자원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가족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외부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적절하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박상희, 1993; Colletta, 1979).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할 경우 편모가족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있다(박상희, 1993; 한경혜, 1993; Berman

& Turk, 1981).

일반적으로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적응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편모자녀의 스트레스 극복과정 역시 개인의 적응정도를 이용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개인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궁극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심리적 복지의 개념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심리적 복지란 생활만족도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장재정, 1987)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편모자녀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극복되느냐에 따라 심리적 복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편모가족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이루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편모가족의 심리적 복지는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변인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 가족자원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경우나 스트레스인지가 낮은 경우 혹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스트레스대처를 하는 경우에 심리적 복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안명자, 1994; Berman & Turk, 1981; Burden, 1986; Shapiro, 1996). 이와 같이 스트레스 관련변인과 심리적 복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모가족의 심리적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관련변인에 대한 특성 분석과 연구가 더욱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편모자녀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자녀의 특성을 살펴 보거나 편모가족 자녀들의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적응, 성격특성, 자아개념, 도덕성발달, 지적발달 등을 일반가족 자녀들과 비교하여 차이를 살펴보

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강해구, 1987; 김순애, 1987; 김영희, 1987; 김정삼, 1990; 이미옥, 1990; 조희선, 1979).

국외연구의 경우에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생활적응을 측정하는 연구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들(Amato, 1993; Baydar, 1988; Fine, Mckenry, Donnelly & Voydanoff, 1992)이 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편모가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편모가족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보고하고 있으므로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 증진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편모자녀의 스트레스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관계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모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자원, 스트레스원, 스트레스인지, 대처행동과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편모자녀의 생활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편모자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편모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키는 자원으로서 기능하며(Campbell & Moen, 1992),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성숙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Compas & Williams,

## II. 이론적 배경

### 1.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

#### 1) 편모자녀의 가족자원

편모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자원의 영향을 살펴보면, 정현숙·서동인(1996)은 가족자원을 심리적 자원, 가족관계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편모자녀들은 각 영역의 자원 모두를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이혼 후 실제 부모양육에는 차이가 없으나 모·자녀유대가 약화됨에 따라 정서적 지지나 부모양육 지지를 일반자녀보다 더 낮게 제공받는다고 하였다(Gringlas & Weinraub, 1995). 또한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모와 의사소통이 잘되는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

다(김영희, 1995 ; 정현숙, 1993).

가족자원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면 편모자녀의 경우 학교, 선생님, 친구, 형제자매 등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며, 친구나 교사의 지지(김영희, 1995), 모의 지지(정현숙, 1993), 조부의 지지(Hetherington & Andegerson, 1989), 형제자매의 관계의 질(Wallerstein, Corbin & Lewis, 1988), 부모관계의 질(Fine et al, 1992) 등도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모의 직업이 있는 경우나 건강이 좋은 경우, 친구관계가 좋은 경우 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백양희·최외선, 1996), 높은 소득과 교육수준은 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Compas & Williams, 1990).

따라서 가족자원은 스트레스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재정적 자원, 자존감과 의사소통 등의 가족건강,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을 중심으로 가족자원을 설정하였다.

## 2) 편모자녀의 스트레스원 및 스트레스인지

편모자녀의 스트레스 연구는 편모와 그 자녀의 상호작용이나 가족자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보므로 가족스트레스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환경적 변화와 부정적 반응사이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Hill(1971)의 ABC-X모델에 의하면 스트레스사건이 발생했을 때(A) 가족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얼마나 소유했는지의 여부(B)에 따라, 또는 그 사건을 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C) 가족의 위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편모자녀의 경우 부부재 사실 자체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변화된 가족의 생활패턴과 모-자녀관계,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축적이 자녀에게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한다(Avshalom & Elder, 1988). 편모자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중에서는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현은강·이순덕, 1992).

자녀의 스트레스인지와 관련된 변인을 보면,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러한 사건을 맞이한 경우(Wallerstein et al, 1988), 부부재의 원인이 사망인 경우, 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지 않고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영희, 1995). 또한 여아보다 남아가 정서적 측면에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Gringlas & Weinraub, 1995). 특히 이혼자녀의 경우 학업성취가 낮은 때 정서적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였으며(Amato & Keith, 1991),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였다(장재송,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모와 그 자녀의 스트레스원 및 스트레스인지를 가족관계, 경제문제, 학교 및 가정갈등, 대인관계, 건강 및 상실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 3) 편모가족의 대처행동

편모자녀의 경우 적응의 정도는 대처자원에 의해 달라지는데 자녀가 위기적 사건에 직면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해 적응양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Amato, 1993). 편모자녀가 사용하는 대처방식을 보면 김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문제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방식 중 종교적 도움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문제회피나 방관, 친구나 교사의 도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문제회피나 방관하는 방식을 취할 때 부적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정현숙·서동인(1996)의 연구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 친척·가족의 도움, 종교, 친구의 도움 순으로 대처행동이 나타났다. 이혼이나 별거한 편모자녀의 경우 문제회피·방관적 대처를 많이 이용하였고, 모의 교육수준이 중졸과 고졸인 집단에서 문제회피·방관적 대처를 더 사용하였다(김영희, 1995). 학년이 높은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는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종교가 있고 여학생인 경우 종교적 도움을 통한 대처와 친구·교사의 도움전략을 사용하였다(정현숙, 1993; 김영희, 1995).

편모자녀의 대처행동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보

면, Hyman와 Wog(1982)는 부부재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이라고 간주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자녀의 인지 및 여기에 대처하여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대처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대처(친구·교사의 도움, 종교의 도움, 스스로 해결, 문제회피·방관)를 볼 때 스트레스와 문제회피·방관 영역간에 역상관이 나타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스트레스인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5; Compas & Williams, 1990).

또한 부부재 후 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상태,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자녀의 대처방식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친밀한 모자녀상호작용은 잘 적응된 행동을 유도한다(Kiston, Babri, Roach & Placidi,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처방법을 정서적 대처행동과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으로 나누어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

편모자녀의 경우 부부재 원인에 따라 심리적 복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혼한 가족의 자녀는 공격적, 일탈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 반면, 부사망 가족의 자녀는 위축, 퇴행행동을 많이 보였다(Kiston & Morgan, 1990).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심리적 문제가 적을수록(정현숙·서동인, 1996; Bronstein, Clauson, Stoll & Abrams, 1994) 자녀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삶의 예기치 못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적응에 더 어려움을 보였다(채규만, 1997). 이혼한 편모자녀의 경우, 이혼시 연령이 어릴수록 이혼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숙, 1993; 주소희, 1991; Kline, Johnston & Tschann, 1991). 가족융통성과 가족유대가 좋을수록, 부모 지지가 적절하고 모의 처벌이 적을수록, 자녀의 생활만족은 높게 나타났다(Henry, 1994; Kline et al, 1991). 모의 양육기술, 적응상태,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어머니의 태도가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정현숙, 1993; Booth & Amato, 1991; Machida & Holloway, 1991)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는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홀로된 원인 등을 중심으로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 3.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 1) 가족자원과 심리적 복지

편모자녀의 가족자원 연구는 주로 사회적 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나 그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복지를 향상시킨다(Erickson, 1989).

편모자녀의 경우 지지적이고 예측가능하여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유아양육기관이나 학교, 선생님, 친구, 형제자매 등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자원이 되며 이 자원은 심리적 복지에 도움이 된다. 친구나 교사의 지지(김영희, 1995; 정현숙, 1993), 부모의 지지(정현숙, 1993), 조부의 지지(Hetherington & Anderson, 1989), 형제자매의 관계의 질(Wallerstein et al, 1988), 부모관계의 질(Fine et al, 1992) 등도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친족지지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며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Talyor & Roberts, 1995).

## 2) 스트레스원 및 스트레스인지와 심리적 복지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가족생활의 질(Pittman & Lloyd, 1988)이나, 생활만족도, 우울(Burden, 1986)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편모가족의 스트레스 인지는 높은 부정적 정서나 행복과 관련되어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조희선, 1991; Greene & Feld, 1989).

편모 자녀의 경우에 스트레스원이 되는 것은 부부재 자체가 아니라 편모자녀가 됨으로써 겪게 되는 부차적인 문제 즉 경제적 어려움, 이중역할, 사회의 부정적 인식, 편견, 고립, 정상가정에 비해 낮은 정서적 지원 등이며, 모의 적응, 사회의 시각변화 및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회의 지원망이 복합적으로 자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채규만, 1997). 부부재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회적 관심이나 자극, 부의 역할에 대한 모델링 감소에서 나타나며, 간접적인 효과는 모의 사회적, 정서적,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발생한다(김영희, 1995). Pittman & Lloyd(1988)는 재정적 스트레스가 부모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자녀의 긴장은 가족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Weigel & Weigel, 1990). 또한 이혼가정자녀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이 동시에 높게 나타났다(Barber, 1994). 백양희와 최외선(1996)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자녀에게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성장, 성숙을 지연시키고 애정결핍과 대화단절을 초래하여 적응능력의 저하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편모자녀가 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복지가 낮게 나타나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들이 자녀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김영희, 1995; Pett et al, 1994). 반면 정서적·문제, 행동적 문제, 스트레스사건에서 일반가족과 편모가족 자녀간에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는 연구(Compas & Williams, 1990)도 있어 부부재 원인자체가 심리적 복지에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 3) 대처행동과 심리적 복지

대처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문제해결방식 중 편모자녀는 종교적 도움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문제회피나 방관, 친구나 교사의 도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문제회피나 방관하는 방식을 취할 때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김영희, 1995). 특히 이혼한 편모자녀의 경우 자율적 해결방식, 친척, 가족의 도움, 종교, 친구의 도움 순으로 대처행동이 나타났고,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경우 우울이 낮았다(정현숙, 1993). Amato(1993)는 자녀적응을 문제와 대처차원의 개념으로 규정 짓고 자녀가 위기적 사건에 직면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해 적응양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자녀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처하는 양상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경혜(1993)는 대응전략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정현숙(1993)은 종교적 도움을 많이 청하는 집단에서 신체적 무기력 및 외로움이 높게 나타났고, 친구의 도움을 덜 요청할수록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종교적 도움을 덜 요청하고 스스로 해결할 경우 자신에 대한 비난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자원,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인지, 대처행동 등이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편모의 자녀이다. 표집과정에서 지역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구성비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고,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토록 하였고 설문지를 끝낸 후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1996년 10월 21-26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참조로 하여 일부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1996년 11월 18일부터 12월 4일 까지 320부를 조사하여 312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기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28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편모연령은 40대가 전체의 61.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에서는 중졸과 고졸이 36.6%, 35.9%로 각각 나타났고, 직업에서 자영업·판매직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서서비스직이 21.5%, 주부도 20.8%나 되었다. 월평균 소득은 31-60만원이하가 38.0%, 61-100만원이 35.4%로 저소득층이 분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부재가 된 기간은 2-5년이 49.2%를 나타내었고 6-9년은 25.2%, 10-14년은 21.6%를 각각 나타내었다. 부부재가 된 원인은 사별이 69.3%, 이혼이 30.7%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약간 더 많이 조사되어 남학생이 44.4%, 여학생이 55.6%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관련 전공 연구자들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hronbach's  $\alpha$ 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모연령, 모교육수준, 월평균소득, 모직업, 홀로된 원인, 홀로된 기간, 자녀의 성별 등을 조사하였다.

##### 2) 가족자원 척도

가족자원척도는 McCubbin과 Comeau(1987)의 가족자원관리척도(FIRM: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하위영역은 재정적 자원(6문항), 가족건강(자존감과 의사소통-7문항),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5문항), 정서적 지지(6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자원을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범위는 24-120점이다.

##### 3)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인지 척도

스트레스의 척도는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의 척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편모가 된 이후 경험한 사건을 스트레스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긴장이나 부담정도를 스트레스인지라고 정의하였다.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인지는 각각 27문항이며 가족관계(6문항), 경제문제(5문항), 학교 및 가정갈등(6문항), 대인관계(6문항), 건강 및 상실(4문항)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원은 스트레스사건당

1점을 주어 총점수범위는 0-27점이며, 스트레스인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담감이 없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범위는 27-135점이다.

#### 4) 대처행동 척도

대처행동의 척도는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와 Gruen(1986), Billings와 Moos(1984) 등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크게 두 영역인 정서적 대처행동과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으로 나누었다. 정서적 대처행동에는 운명주의, 정서표출, 환상적 회피, 지적 부인, 자기책망, 사회적 비교, 진정요법, 방어, 회화, 우유부단, 지연, 위축, 신앙 등으로 구성하였고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에는 이성적 행동, 대안적 선회, 도움요청, 인내, 긍정적 사고, 단계적 해결, 대체, 유연성, 재충전, 자아적응, 적극적 소거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정서적 대처행동은 12문항으로 총점수범위는 12-60점이고,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은 11문항으로 점수범위는 11-55점이다.

#### 5) 심리적 복지 척도

심리적 복지척도는 생활만족도와 우울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생활만족도는 Bradburn(1969)의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과

Olson과 Barnes(1982)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척도를 수정하여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즉 일상생활의 만족, 가정생활의 행복, 어머니와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의 만족, 어머니와의 대화만족, 조부모님이나 친척과의 관계만족, 가사 일을 도와 주는 것에 대한 만족, 어머니의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5점)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12점-60점이다.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가시게 느끼지 않았던 일에 대해 귀찮게 느낌, 식욕감퇴,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도 우울한 기분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수범위는 14점-7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한 Chronbach'  $\alpha$  값은 .704에서 .892 사이로 산출되었다.

###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처리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통계처리는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

편모자녀의 가족자원, 스트레스원, 대처행동, 스트레스인지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 및

모자녀간 차이는 <표 1>과 같다.

편모자녀의 가족자원은 평균 2.94로 중간(3.00)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각 하위영역을 볼 때 도구적 지지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가족건강, 재정적 자원, 정서



<표 1>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

변인	M (SD)
가족자원	재정적 자원 2.65( .78)
	가족건강 3.09( .53)
	도구적 지지 3.50( .68)
	정서적 지지 2.50( .74)
	전 체 2.94( .50)
1) 스트레스원	가족관계(1-6) 4.70( 1.41)
	경제문제(1-5) 3.98( 1.28)
	학교 및 가정갈등(1-6) 4.52( 1.44)
	대인관계(1-6) 3.62( 1.88)
	건강 및 상실(1-4) 2.90( 1.26)
	전 체 19.72( 5.37)
스트레스인지	가족관계 2.76( .74)
	경제문제 2.86( .86)
	학교 및 가정갈등 2.50( .62)
	대인관계 2.13( .74)
	건강 및 상실 전 체 2.55( .55)
대처행동	정서적 대처 2.90( .46)
	문제해결적 대처 3.09( .51)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도 3.18( .62)
	우울 3.01( .76)

1)( )는 점수범위를 나타냄

\* p<.05    \*\* p<.01    \*\*\* p<.001

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원은 중간점수인 13.5를 넘는 19.72(문항평균)로 나타나 비교적 스트레스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모와 자녀 모두 가족관계영역과 학교 및 가정갈등영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스트레스인지는 평균 2.55로 중간(3.00)보다 낮은 수준이며 모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보면 모와 유사하게 경제문제영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인지를 보였고 그 외 가족관계, 건강 및 상실, 학교-가정간 갈등,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행동은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은 중간(3.00)

을 넘는 수준으로 비교적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이 정서적 대처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행동방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는 평균 3.18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자녀의 우울은 3.01로 중간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 2. 편모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

### 1) 변인간 상관관계

자녀의 변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모의 교육수준과 스트레스인지( $r=-.186$ ), 우울( $r=-.219$ )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생활만족도( $r=.144$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다.

( $r=.340$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자원이 많다고 인지한 경우나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할수록 생활만족도는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대처행동( $r=-.420$ ), 스트레스인지( $r=-.457$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정서적 대처를 안할수록, 스트레스인지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므로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자원의 확보, 문제해결적 대처 행동이 요구된다 하겠다.

우울은 스트레스원( $r=.542$ ), 정서적 대처( $r=.431$ ), 스트레스인지( $r=.637$ )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우울감소를 위해 스트레스원의 정도가 감소되어야 하겠고 대처행동에서도 정서적 대처행동보다는 문제해결적 대처행동( $r=-.136$ )이 중요하며 스트레스인지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자녀의 경우에도 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트레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가족자원 해 재정적 자원( $r=.168$ ), 가족건강( $r=.341$ ), 문제해결적 대처행위

<표 2> 자녀의 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모연령																
2. 모교육수준	-.028															
3. 월평균소득	.004	.330														
4. 홀로된 원인	-.067	-.027	-.059													
5. 홀로된 기간	.140*	-.002	-.094	.107												
6. 자녀성별	-.028	.086	-.013	-.040	.033											
7. 재정적 자원	.055	.189**	.254***	-.142*	.014	-.123*										
8. 가족건강	.016	.122*	.016	-.153**	-.106	.006	.233***									
9. 도구적 지지	.003	.041	-.017	-.135*	.012	-.037	.253***	-.036								
10. 정서적 지지	-.035	.231***	.039	-.176**	-.091	-.044	.305***	.177**	.547***							
11. 스트레스원	.029	-.159**	-.052	.051	-.035	-.105	-.135*	-.163**	.066	-.044						
12. 스트레스인지	.037	-.186**	-.085	.058	.004	-.081	-.146*	-.182**	.052	-.063	.947***					
13. 정서적 대처	.083	-.072	-.034	.002	.031	.056	.021	-.050	-.003	.064	.273***	.330***				
14. 문제해결적 대처	.022	.063	.074	-.008	.021	-.021	.018	.059	.082	.062	-.019	-.010	-.051			
15. 생활만족도	-.017	.144*	.097	-.087	-.038	-.009	.168**	.341***	.077	.177**	-.413***	-.457***	-.120*	.340***		
16. 우울	.086	-.219***	-.082	.047	.106	.057	-.129*	-.248***	-.088	-.141*	.542***	.637***	.431***	-.136*	-.556***	

\* p<.05    \*\* p<.01    \*\*\* p<.001

스인지, 대처행동, 심리적 복지 등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모의 교육수준이나 재정 및 가족건강자원 등도 모의 경우보다는 상관 정도가 낮지만 스트레스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편모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

편모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자원, 스트레스원, 대처행동과 스트레스인지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성이 지나치게 높은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인지( $r=.700$ 이상) 중 스트레스원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284 < r < .547$ 의 범위로 독립변수들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앞서의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을 중심으로 모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홀로된 원인, 재정적 자원, 가족건강,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스트레스인지, 정서적 대처행동, 문제해결적 대처행동 등의 변인을 선정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고, Durbin Waston 계수(DW)를 산출한 결과 1.913-2.132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편모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인지( $\beta=-.42, p<.001$ ), 문제해결적 대처행동( $\beta=.31, p<.001$ ), 가족건강( $\beta=.25, p<.001$ )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생활만족도를 40%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스트레스인지가 낮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건강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주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자원 중 가족건강, 스트레스인지,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생활만족도에는 가족자원 중 가족건강만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져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가족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표 3> 편모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

종속변인 \ 독립변인	생활만족도		우 울	
	B	$\beta$	B	$\beta$
모교육수준	.06	.01	-1.74	-.08
월평균소득	.68	.04	-.01	-.00
홀로된 원인#	.52	.03	-1.26	-.06
재정적 자원	.08	.00	.36	.02
가족건강	4.92	.25***	-2.93	-.14**
도구적 지지	.90	.05	-1.52	-.08
정서적 지지	.74	.05	-.88	-.05
스트레스인지	-8.10	-.42***	11.06	.52***
정서적 대처	.92	.05	5.50	.26***
문제해결적 대처	6.40	.31***	-2.15	-.09*
F	17.3***		27.55***	
R <sup>2</sup>	.40		.51	

(#가변수 : 사별=0, 이혼=1)

\*  $p<.05$     \*\*  $p<.01$     \*\*\*  $p<.001$

편모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인지( $\beta=.52, p<.001$ ), 정서적 대처행동( $\beta=.26, p<.001$ ), 가족건강( $\beta=-.14, p<.01$ ), 문제해결적 대처행동( $\beta=-.09, p<.05$ )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우울을 51%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스트레스인지가 높을수록, 정서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건강이 낮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적게

할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가족자원에 있어서는 가족건강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자녀는 긍정적, 부정적인 심리적 복지의 양측면 모두 가족상호작용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우울에서 보다 실제적인 자원의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와 달리 정서적 대처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긍정적 심

리적 복지인 생활만족도에서는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이, 부정적 심리적 복지인 우울에서는 정서적 대처행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인지는 자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자녀의 가족자원은 평균 2.94로 나타났다며 도구적 지지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가족건강, 재정적 자원, 정서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 중 외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편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위 친척으로부터 정보나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스트레스원은 19.72(문항평균)로 나타나 비교적 스트레스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모와 자녀 모두 가족관계영역과 학교 및 가정갈등영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스트레스인지는 평균 2.55로 나타났으며 경제문제영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인지를 보였고 그 외 가족관계, 건강 및 상실, 학교-가정간 갈등,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공세권·조애저·허미영, 1995;조희선, 1991;박상희, 1993;Berman & Turk, 1981;Compas & Williams, 1991;Richards & Schmiede, 1993)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편모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이며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처행동은 비교적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이 정서적 대처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근거에 의해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원과 인지를 비교해 보면 모자녀 모두 가족관계 스트레스원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하여 경제문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심리적 복지에 있어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18로, 우울은 3.01로 나타났다.

둘째, 편모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스트레스인지가 낮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건강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생활만족도를 40%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스트레스인지(Pett et al, 1994;Weigel & Weigel, 1990), 위기적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김영희, 1995;Amato, 1993)이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편모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인지가 높을수록, 정서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건강이 낮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적게

할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우울을 51% 설명해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낮은 스트레스인지(Barber, 1994; Pett et al, 1994), 대처자원이 많은 경우(김영희, 1995; Amato, 1993) 우울은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우선 스트레스인지가 심리적 복지에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스트레스인지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건강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이 두드러져 특히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은 문제해결적 대처행동과, 부정적 측면은 정서적 대처행동과 관련이 깊어 대처행동에 있어서 특히 문제해결적 대처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정내외의 대안모색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결과를 볼 때 스트레스원을 경험하는 경우 주로 정서적 대처행동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 대처행동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심리적 복지인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이 없는 변인인 반면 부정적 심리적 복지인 우울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때 정서적 대처행동이 갖는 효율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원이나 가족건강,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자원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증가시켜야 하며 스트레스인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자녀의 스트레스원은 비교적 높은 반면 스트레스인지수준은 중간정도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이 편모자녀의 부적응을 강조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편모자녀가 스트레스상황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편모자녀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스트레스인지 정도가 높은 재정적 문제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결손된 부분과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복지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편모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정서적 대처행동보다 문제해결적 대처행동 점수가 높았고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에는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이, 부정적 측면에는 정서적 대처행동이 영향을 주고 있어 심리적 복지향상에 있어서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이 중요한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편모가족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해결적 대처행동과 같은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양식에 대한 훈련과 정보 전달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가족자원은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 극복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특히 가족건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겠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녀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넷째,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스트레스인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편모가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편모자녀의 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스트레스인지를 낮출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모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편모에게 원만한 가족관계 향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편모자녀 상호간에 심리적 복지향상을 위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결론지어 보면 편모자녀의 심리적 복지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가족자원, 스트레스인지, 대처행동이 중요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트레스인지가 매우 중

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편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적 대처방식 증진 등 스트레스감소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해구(1987). 결혼가정 고교생과 정상가정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비교. 고려대 석사논문.
- 김순애(1987). 결혼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김영희(1987). 결혼가정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 석사논문.
- 김영희(1995). 편모가정내의 자녀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김정삼(1990). 정상가정아동과 편부모아동의 인성특성비교. 건국대 석사논문.
- 박상희(1993). 저소득층 모자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 백양희·최외선(1996). 농촌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4(1), 33-48.
-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장재송(1991). 고등학생의 입시스트레스와 가족기능간의 관계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장재정(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05-154.
- 정현숙·서동인(1996).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 '96 가정 복지세미나, 33-64.
- 조희선(1979). 모자가족의 가정환경과 가정·학교·사회적 적응. 성균관대 석사논문.
- \_\_\_\_\_ (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 주소희(1992). 이혼가정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채규만(1997).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심리치료적 접근방법. 제 4회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 심포지움 '이혼과 적응' 심리·사회·법률적 조명. 41-51.
- 통계청(1996).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
-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79-104.
- 현운강·이순덕(1992). 양친가정과 결혼가정자녀의 스트레스인지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3(1), 131-146.
- Amato, P.R.(198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 Theories, hypothesi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23-38.
- Amato, P.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Avshalom, C. & Elder, H.(1988). *Emergent*

- family patterns* : The intergenerational construction of problem behavior and relationship.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rber, B.K.(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375-386.
- Baydar, N.(1988). Effects of parental separation and reentry into union on the emotional well-being of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4), 967-981.
- Berman, H.W. & Turk, C.D.(1981). Adaptation to divorce :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79-189.
- Billings, A.G. & Moos, R.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77-891.
- Booth, A. & Amato, R.(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Bradburn, N.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 Bronstein, P., Clauson, J., Stoll, M.F., & Abrams, C.(1993).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s. *Family Relations*, 42(3), 268-276.
- Burden, D.S.(1986). Single parents and the work setting : The impact of multiple job and homelife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5(1), 37-43.
- Compas, B.E. & Williams, R.A.(1990). Stress, coping, adjustment in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Aug, 18(4), 525-545.
- Campbell, M.L. & Moen, P.(1992). Job-family role strains among employed single mothers of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41, 205-211.
- Deacon, R. & Firebaugh, F.(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2nd ed.). Boston : Allyn & Bacon.
- Demo, D.H., Small, S.A., & Savin-Williams, R.C.(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4), 705-715.
- Erickson, C.A.(1989). Negative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 Satisfaction with support from family vs. Friends. *Family Perspective*, 23(2), 85-97.
-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J.(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Fine, A.M., Mckenry, C.P., Donnelly, W.B., & Voydanoff, P.(1992). Perceived adjustment of parents and children : Variations by family structure, race and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118-127.
- Gringlas, M. & Weinraub, M.(1995). The more things change... Single parenting revisited. *Journal of Family issues*, 16(1), 29-52.
- Greene, R.W. & Feld, S.(1989). Social support coverage and the well-being of elderly widows and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33-52.
- Henry, C.(1994).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 family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3(4), 447-455.
- Hetherington, M. & Anderson, E.(1989). Marital transition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Hill, R.(1971). *Families under stress*. Westport,

- Conn : Greenwood Press.
- Homes, T.H. & Rahe, R.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Hyman, R. & Wog, D.(1982).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onset : A review of crucial variabl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5(1), 155-183.
- Kiston, G.C., Babri, K.B., Roach, M.J., & Placidi, K.S.(1989). Adjustment to widowhood and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5-32.
- Kiston, G.C., & Morgan, L.A.(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13-924.
- Kline, M., Johnston, J.R., & Tschann, J.(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 A model of children's post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297-309.
- Lavee, Y., McCubbin, H.I., & Patterson, J.M.(1985).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ion : An empirical test by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811-825.
- Machida, M.S. & Holloway, D.S.(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d mothers perceived control over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ost-divorce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40(3), 272-278.
- McCubbin, H.I.(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Minnesota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I. & Comeau, J.K.(1987). FIRM :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In H.I. McCubbin & A. I. Thompson(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pp. 145-160).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 Pett, M.A., Vaughan-Cole, B., & Wampold, B.E.(1994).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ived stress-Their impact on children's adjust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young divorced and marrie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2), 151-158.
- Pittman, J.F. & Lloyd, S.A.(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53-67.
- Radloff, L.(1977). The CED-S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ichards, L. & Schmiede, C.(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277-285.
- Taylor, R.D. & Roberts, D.(1995). Kinship support and maternal and adolescent well-being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African-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6, 1585-1597.
- Wallerstein, J., Corbin, S., & Lewis, J.(1988). Child of divorce : A ten year study. In E.M. Hetherington & J. Arasteh(Eds.), *Impact of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stepparenting on children*(pp. 198-214). Hillsdale, NJ : Erlbaum.
- Webster-Stratton, C.(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417-430.
- Weigel, D.J. & Weigel, R.R.(1990). Family satisfaction in two-generation farm families : The role of stress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39(4), 449-455.